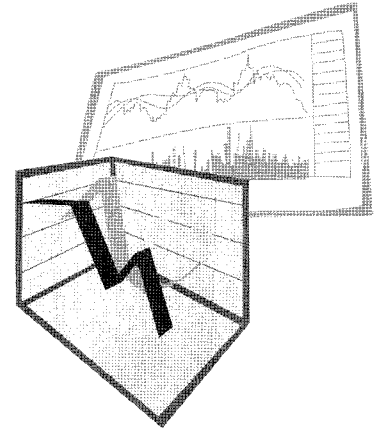


외인투자 신성장동력에



금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 동기 (4,644백만불) 대비 6.7% 감소한 4,332백만불을 기록했다.

환율하락, 전세계 FDI의 금융위기 이전수준 회복 지연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평균환율('09상 → '10상)은 (원/달러) 1,351 → 1,154, (원/100엔) 1,415 → 1,263이다. '08년 이후 급락한 세계적 FDI가 '10년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 (UNCTAD, '10.4월)이다.

2분기 신고액은 2,792백만불로 1분기(1,540백만불) 대비 81.3% 증가하여 하반기에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신고액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금융위기 전 기준으로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독일 등과 함께 양호한 수준인 것이다.

금융위기 전후 FDI증감('08.1q → '10.1q, %)은

(독일) △3.8, (한국, '08상 → '10상) △4.7, (중국) △14.5, (미국) △43.3, (일본) △91.9, (인도) △58.2, (베트남) △62.7 이다.

분야별 특징을 보면, 바이오의약, 신재생에너지, LED,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의 투자가 급증하였다. 천만불 이상 투자 중 신성장동력 관련에서 626백만불/3,960백만불, 15.8% ('09상) → 1,147백만불/3,668백만불, 31.3% ('10상)이다.

신성장동력 관련 주요 투자사례를 보면, 의약의 경우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 업체)에 싱가포르 테마섹이 1.9억불 투자하였고, SD(진단시약개발 업체)에 아일랜드 Inverness Medical이 2억불 투자하였다. 동아제약에 영국 그락소스미스클라인이 1.2억불 투자하였다.

풍력의 경우 영양풍력발전공사에 스페인 악시오나

(단위 : 백만불, %)

	'09.1Q	'09.2Q	'09.상	'10.1Q	'10.2Q	'10.상
금액	1,677	2,967	4,644	1,540	2,792	4,332
증감률(전년동기)	△8.9	62.0	2.1	△8.2	△5.9	△6.7
증감률(전분기)		76.9			81.3	

“

신성장동력 관련 주요 투자사례를 보면, 의약의 경우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 업체)에 싱가포르 테마섹이 1.9억불 투자하였고, SD(진단시약개발 업체)에 아일랜드 Inverness Medical이 2억불 투자하였다. 동아제약에 영국 그락소스미스클라인이 1.2억불 투자하였다.

”

가 6,200만불 투자하였다. LED의 경우 린데코리아(LED용 수소가스)에 독일 린데그룹이 3,000만불 투자하였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쏘시스템(S/W) 2,500만불 투자 등이다

제조업은 증가(1,995백만불, +19.6%)하고, 서비스업은 감소(2,272백만불, △23.0%)하여 두 부문간 편차가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의약, 화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전기전자는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중 유통은 전년과 같은 대형투자가 없어 감소폭이 크고, 금융은 금융위기 후 세계적인 사모펀드 유입 급감으로 '08년 이후 지속 감소하였다.'09년 유통분야 대규모 투자는 이베이지마켓(6.6억불), 홉플러스테스코(1.5억불)이다. 2008이후 세계FDI 감소 중 금융분야 비중은 49.1%(UNCTAD)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동, 중국 등 신흥투자국은 급증

(1,915백만불, +80.5%), 전통투자국은 감소(2,417백만불, △32.5%)하여 투자국 다변화 추세인 것이다.

중동(163백만불, +825.0)은 관광부문 중심으로 증가, 중국(65백만불, +102.7%)은 제조·서비스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미국(389백만불, △35.8)은 對韓투자 최대 업종인 금융분야의 국제적인 투자 감소, 미국정부의 국내투자 강조 등 영향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의 對韓 금융투자액(비중)은 ('08상) 4.4억불(64.0) → ('09상) 2.5억불(41.8) → ('10상) 0.1억불(3.4)이다. 미국은 해외투자기업 감세폭을 줄여, 국내투자기업 감세를 확대('10년 연두교서)하였다.

EU(1,407백만불, △21.8), 일본(621백만불, △47.3)은 남유럽 재정위기, 신흥국이나 미국 등에 비해 경기회복 지체 등으로 해외투자가 위축되었다.

【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백만불)

업종	'08.상	'09.상(a)	'10.상(b)	증가율(b-a)/a
제조업	1,652	1,668	1,995	19.6
- 의약	3	0	538	순증
- 화공	277	109	382	250.5
- 전기전자	647	860	350	59.3
서비스업	2,807	2,952	2,272	△23.0
- 금융	1,856	992	300	△69.8
- 유통·물류	278	1,384	206	△85.1
전기·가스	27	16	64	300.0

【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백만불, %)

국 가		'08 상반기	'09 상반기	'10 상반기	증감률(%)
전통 투자국	미 국	694	605	389	△35.8
	일 본	644	1,178	621	△47.3
	E U	2,147	1,800	1,407	△21.8
소 계		3,485	3,583	2,417	△32.5
신흥 투자국	중 동	9	18	163	825.2
	중화(중국)	560(24)	870(32)	853(65)	△2.0(102.7)
	기 타	494	173	899	419.7
소 계		1,063	1,061	1,915	80.5

경제성장을 현황 및 전망('09성장률 / '10성장률 전망(IMF))은 (세계) △0.6 / 4.2, (중국) 8.7 / 10.0, (미국) △2.4 / 2.7, (EU) △4.1 / 1.0, (일본) △5.2 / 1.9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투자비중은 '08년 77.8%, '09년 64.0%에 이어 금년 상반기 40.2%를 기록하여 지역편중이 크게 완화되었다. 지자체별로 외국인 투자금액은 서울, 경북, 인천 順,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제주, 전북, 경북 順으로 높게 나타났다. 투자액 상위(백만불, %)는 서울(852, △57.0), 경북(700, +2,714.0), 인천(460, +217.8)이고, 증가율 상위(백만불, %)는 제주(42, +38,200), 전북(156, +5,460.5), 경북(700, +2,714.0)이다.

향후 전망은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세계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투자유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수출 동반호조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빠르고, 2분기 외국인투자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다. GDP('10.1분기)는 전년동기비 +8.1%, 설비투자지수('10.1분기)는 전년동기비 +24.3%이다. 대외 여건은 세계경기가 점차 개선되

고 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 하방 위험요인이 잠재한다. 추진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서 국가별, 분야별로 적극적 유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투자국 다변화로 美·日은 물론, 중국·중동 신흥투자국의 특징을 고려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최근의 증가세를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China Desk('10.5월 출범)를 활용하여 중국 권역별 투자유치활동(수시)을 할 것이고, 중동의 경우 고위급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IR(11월)을 개최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부품소재 중점 IR(7월), 미국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중점 IR(9월)을 할 것이다. 분야별 차별화된 유치 추진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서비스분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금융, 유통·물류·SOC, 관광·레저, 지식서비스 4개 분야별 투자유치대책 수립 중이다. 해외무역관, 중앙부처(국토부, 문화부 등), 로펌, 금융기관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점검하여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하는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및 광역단체와 연결하는 맞춤형 투자상담을 추진할 것이다.